



사도행전의 본문비평과 번역

송영목 교수(고신대 신학과)

1. 들어가면서

먼저 성경 번역의 역사와 필요성을 살펴보자. 최초의 성경 번역은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인데, 그것은 남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BC 6세기 때의 일이다. 구전으로 전수된 탈굼은 결국 AD 1-2 세기에 문서로 번역되었다. 랍비들은 탈굼을 예배 중에 히브리어 성경의 대용으로 허용했지만, 예멘의 유대인 공동체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탈굼을 권위 있는 성경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BC 3세기 이집트에서 번역된 LXX을 마치 하나님께서 번역자들을 영감시켜서 받아 적어라고 지시하신 말씀처럼 권위를 높이 인정했다. AD 70년 이후, 랍비 유대교는 중세에 맞소라 본문(MT)이 된 히브리어 성경의 권위를 높이면서, LXX를 변질된 성경이자 기독교화 된 성경으로 간주했다. 바로 이 LXX에서 AD

2세기에 고대 라틴어로,¹ 3세기에 콥트어로, 4세기에 제롬은 ‘불가타’로 불린 새 라틴어로, 5세기에 아르메니아어로, 9세기에 아랍어로, 12-14세기에 슬라브어와 페르시아어 등으로 번역되었다.² 그렇다면 성경을 새롭게 번역하는 작업은 왜 여전히 필요한가? 성육하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와 성경 읽기에서 실제화하기 위해서 이다. 왜냐하면 모든 번역 성경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기독교는 가히 ‘번역 종교’라 불릴 만하다. 유통기한이 있는 음식처럼 성경 번역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언어와 철자 체계가 변하고, 성경 언어와 주해에 대한 통찰력도 향상되고, 크리스천 새 세대에게 성경을 생생하게 이해시키고 적용하도록 도우려는 열망이 일어나기 때문이다.³ 중세에 불

-
1.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 터툴리안(155-240)은 라틴어 역본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카르타고 출신 키프리안(d. 258)은 2세기 말에 등장한 라틴어 역본을 개정한 아프리카 라틴어 역본(K-text)을 알고 있었다. 북아프리카 히포 출신 어거스틴(d. 430)은 아프리카 본문 유형(K)을 자주 활용했고, 유럽 본문 유형(D, I)의 라틴어 역본도 가끔 활용했다. 하지만 그는 I-text D-Text를 개정한 불가타(V-text)의 사도행전을 인용한 바가 없다. 그리고 여러 라틴어 역본들을 활용하여 사도행전 주석을 쓴 Bede(d. 735)는 고대 라틴어역본, Codex Miattinus(c. 700)와 Codex Laudianus(대문자 사본 번호 50)에 포함된 라틴어 역본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 J. H. Petzer, “St Augustine and the Latin Version of Acts,” *Neotestamentica* 25/1 (1991), 34-35, 49; M. L. W. Laistner, “The Latin Versions of Acts known to the Venerable Bede,” *Harvard Theological Review* 30/1 (1937), 43, 48. 현존하는 라틴어 신약사본은 8,000개에 달하므로, 헬라어 신약사본보다 많다. D. E. Aune, “The Text-Tradition of Luke-Acts,” *Bulletin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7/3 (1964), 69.
 2. 사도행전의 에티오피아 역본으로 다소 후대의 것인데, 파리 국립박물관에 보관 중인 P, 런던 대역 성경의 L, 그리고 바젤과 라이프치히에서 출판된 B가 있다. P는 원본이 훼손된 형태이며, L은 아랍어 역본의 영향은 거의 없고 라틴어역본의 영향을 받았고, B는 아랍어 역본의 영향을 받은 전형적인 에티오피아 역본이다. J. A. Montgomery, “The Ethiopic Text of Acts of the Apostles,” *Harvard Theological Review* 27/3 (1934), 205; A. Kyrychenko, “The Old Slavonic Acts in Apparatus Critici of the Greek NT: Observations and Suggestions,” *Novum Testamentum* 47/1 (2005), 69-74.
 3. 예를 들어,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한글 성경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신세대에게 한자 교육이 중요하다. 사복음서에 한자 표기는 2,116개에 달한다.

가타가 권위 있는 정경으로 인정받았다면, 오늘날 미국 남부의 바이블 벨트에 KJV가 그런 위치에 있다. 하지만 KJV보다 더 나은 번역들이 많이 등장해 왔다.⁴ 한국의 경우, 대한성서공회(KBS)는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61)과 <개역개정판>(1998)에 이어, 2012년부터 <새한글 성경전서>(가칭)를 준비 중이다. <새한글 성경전서>는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한글 어법에 맞게 최신 연구를 반영하는데, 한 문장은 50자 내외 16어절을 넘지 않도록 하며, 대화체는 구어체로 옮기고, 높임법을 사용하며, 원문의 어순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⁵

이 글이 초점을 맞추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므로, 이 둘은 ‘누가-행전’이라고 불린다.⁶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독자로 삼아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가 두 권으로 나누어진 정경이다.⁷ 따라서 이 두 권을

-
- 박덕유·이안용,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성경 한자어 교육 연구: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5 (2019), 163, 166.
4. 이 단락은 L. de Vries, “Retranslations of Holy Scriptures: Why keep Translating the Bible,” 『성경원문연구』 45 (2019), 256-66에서 요약. 참고로 사도행전 역본들은 고대 대문자 헬라어 사본들을 골고루 따른다. 즉 특정한 대문자 사본을 따르지 않는다. 사도행전 역본은 헬라어 대문자 사본 B보다 A를 더 따른다. 이 현상은 고대 역본들이 A보다 B를 더 의존한 것과 다른 현상이다. 사도행전 역본 중에 이집트 보하이릭 역본보다 사히딕 역본이 B에 더 가깝다. 그리고 8가 사도행전 역본에 미친 영향은 의외로 적은데, 8만의 독특한 독법 때문이다. 참고. J. H. Ropes and W. H. P. Hatch, “The Vulgate, Peshitto, Sahidic, and the Bohairic Versions of Acts and the Greek Manuscripts,” *Harvard Theological Review* 21/1 (1928), 94-95.
5. 이두희, “<새한글 성경전서>(가칭)의 번역 원칙과 몇 가지 보기들” (서울대 서양고전학연구소 &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공동주최 고전 번역과 성경 번역 세미나,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대림국제관, 2019년 11월 22일), 3-4.
6. 누가-행전이 소개하는 베드로, 세베데의 아들 요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 마태, 바울, 마가 요한은 모두 흠과 약점이 있었지만 신약의 기록자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누가-행전은 마치 신약의 목록을 보여주는 책과 같다. P. J. Scaer, “The Role of the Book of Acts in the Recognition of the New Testament Canon,” *Concordia Theological Quarterly* 79/3-4 (2015), 271.
7. A. A. Just Jr., “Luke’s Canonical Criterion,” *Concordia Theological Quarterly* 79 (2015), 245-60.

하나의 통일성 있는 내러티브로 읽는 것은 자연스럽고,⁸ 누가-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눅 1:1-4와 행 1:1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려는 시도나 누가-행전 전체에서 주제의 통일된 관점을 찾으려는 다양한 시도는 자연스럽다.⁹

사도행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헬라어 사본인 AD 3세기 말의 파피루스 코덱스 두 개(p^{45, 53})에 따르면, 이 책은 4복음서의 내러티브를 보완하는 것처럼 소개된다. 즉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는 차원을 넘어서는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은 마 28장의 전도명령, 막 16장의 여러 주제(믿고, 세례 받음, 축귀, 표적, 방언, 예수님의 승천, 세계 선교), 그리고 요한복음의 베드로의 회복(요 21:15-17)과 성령의 역할(요 14-16)을 이어 받아 마치 후속편처럼 복음의 확산을 소개한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4복음서의 스토리 라인이 멈추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전개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마치 ‘제5복음서’와 같다.¹⁰

흥미롭게도 누가-행전만 포함하는 헬라어 사본은 없다.¹¹ 그런데 사도행전의 경우, UBS/GNT 5판(2014)에서 본문비평의 등급 {C}인 경우는 총 42개이다. 이 가운데 4세기 대문자 사본 01)*)와 B(03)는 일치하지만 AD 800년 이

8. A. Gregory, “The Reception of Luke and Acts and the Unity of Luke-Acts,” *JSNT* 29/4 (2007), 459-72.

9. I. Czachesz, “Narrative Logic and Christology in Luke-Acts,” *Communio Viatorum* 37/2 (1995), 93-106.

10. 이 단락은 G. Goswell, “The Place of the Book of Acts in Reading the NT,” *JETS* 59/1 (2016), 70-72에서 요약.

11. 누가-행전 사본들과 역본들은 AD 2세기부터 이단(예. 말시온)의 영향, 타티안의 디아테사론, 그리고 고사본과 역본이 필사 될 당시 교회의 교리 때문에 수정을 겪었다. Aune, “The Text-Tradition of Luke-Acts,” 73-76. 참고로 20세기 중반의 논문에서 Aune은 서방, 알렉산드리아, 가이사라, 비잔틴 본문이라는 4가지 분류 방식을 따랐다.

후의 비잔틴계열의 다수사본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26개이다.¹²

그런데 \aleph 와 B는 서로 불일치하지만, \aleph 나 B가 다수사본과 일치하는 경우는 12개이다. 이 12개 본문만 두고 볼 때, 다수사본은 \aleph 를 B보다 더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바로 이 12개 본문의 원본을 추적하며, 적절한 번역을 제시하는데 있다. 필요시, 사도행전에서 매우 특이한 베자사본(D, 05)의 신학적 특성도 더불어 설명할 것이다.¹³

12. 비잔틴계열로 분류되는 다수사본은 공인본문(TR)의 전통을 따른다. TR은 에라스무스(1516), 스테파누스(1550), 그리고 엘지비어(1633)로 계승되다가, 칼 라흐만(1831)에 의해 결정적으로 반대에 직면했다. 그런데 개역개정판의 사도행전의 경우, TR과 KJV의 영향에서 거의 다 벗어났다. 그러나 행 19:41과 20:4는 TR의 영향을 예외적으로 받고 있다. 또한 GNT/UBS 5판의 행 11:20과 20:28은 TR의 영향을 반영한다. 본문비평에서 TR과 다수사본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고, 적절히 참고해야 한다. 비평본문이 매우 중요하지만, ‘새로운 TR’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다수사본 주의자들은 길고 설명이 쉽고 충분한 이문을 원본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하지만 그들은 긴 표현을 가진 사도행전의 D를 지지하지 않는 모순을 보인다. 참고. 장동수, “Textus Receptus와 한글 신약성서 번역: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 43/1 (2009), 43-68; F. Stagg, “Textual Criticism for Luke-Acts,”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5/3 (1978), 142, 154.

13. 사도행전에서 AD 5세기 대문자 사본 D(05)의 신학적 경향은 아래와 같다. “(1) 사도행전의 전형적인 신학이나 주제나 기법을 따름(11:28; 13:43; 19:20). (2) 표현을 첨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표현을 완전히 삭제하거나 일부 생략하는 경우는 6회임(1:11; 2:18b, 19, 21; 4:12; 15:20b). 구전이나 역사적 정보를 반영하여 부가적 설명을 시도함(4:6; 5:39; 8:24; 19:9; 21:16-17). (3) 고등기독론(2:30; 18:8; 20:21). (4)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성령론(8:24; 11:17b; 15:7, 29c, 32; 19:1). (5) 베드로에 대한 긍정적 묘사(5:29; 11:2; 15:7; 15:12). (6) 반유대적 특성(15:2, 20bc; 21:25ab; 참고. 3:17; 13:27). (7) D 필사자 당시의 교회의 관습을 반영(10:30; 13:33). (8) 바울에 대한 긍정적 묘사(16:39; 19:1). (9) 합리적 사고(3:21). (10) 인용한 구약의 표현에 일치시키거나(2:18b),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2:19). (11) 윤리적 교훈을 강조함(15:20c). (12) 반여성적 특성은 나타나지 않음.” 송영목, 『다차원적 신약읽기』 (서울: CLC, 2018), 131(“사도행전에서 D[05]의 신학적 경향,” 『신학논단』 87 [2017], 181-207에 실린 논문임).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서방사본은 고기독론과 성령과 사도의 사역을 긍정적으로 강조한다는 분석은 송순열, “사도행전 본문 연구: 서방 사본과의 비교,” 『성경원문 연구』 5 (1999), 116-29; 사도행전의 장르를 고대 역사기록(ancient historiography)으로 보는 C. S. Keener, *Acts: An Exegetical Commentary* (Volume 1; Grand Rapids: Baker, 2012), 10, 89를 참고하라. 그리고 사도행전의 사본에 대한 전반적 논의는 R. J. Swanson, *New Testament Greek Manuscripts: The Acts of the Apostles* (Pasadena: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2. 본문비평과 번역

도표 안에 UBS/GNT의 이문들, 한글 개역개정 그리고 바른성경의 본문을 차례로 소개한다. 그리고 도표 아래에 헬라어 이문들 가운데 원본에 가까운 표현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그 다음 확정된 헬라어 표현을 반영하여, 도표 맨 아래에 새로운 한글 번역을 제안한다.

2.1. 사도행전 2:43

B, 다수사본, D	διὰ τῶν ἀποστόλων ἐγίνετο
p ⁷⁴ , κ, A	διὰ τῶν ἀποστόλων ἐγίνετο ἐν Ἱερουσαλὴμ· φόβος τε ἦν μέγας ἐπὶ πάντας(예루살렘에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다).
개역개정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바른성경	(많은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이)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났다.
번역 제안	사도를 통하여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었다.

사본 상, 헬라어 두 이문의 무게는 대등하다. p⁷⁴, κ, A가 지지하는 두 번째 이문은 긴 표현을 추가한다. 이런 추가 표현은 43절 상반절의 표현과 유사하기에 의미가 반복된다. 따라서 상반절의 표현을 기억한 κ의 필사자가 실수로 반복한 것이거나, 의미를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¹⁴ 참고로 5세기 대문자사본 D(05)는 대체로 길고 설명을 추가하는 표현을 선호하지만, 여기서는 간결하게 표현한다.¹⁵ 미완료 디포넌트 직설법

Press, 1998)를 보라.

14. D. L. Bock, *Acts* (BECNT; Grand Rapids: Baker, 2007), 156.

15. 참고로 1879년에 E. von Goltz가 아토스산에서 발굴한 AD 10세기 경 소문자사본 1739는 사도 행전을 포함한다. 그런데 1739는 AD 4세기 대문자 조상 본문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4세기 교

3인칭 단수 ‘일어나고 있었다’(ἐγίνετο)는 사도가 반복적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개역개정과 바른성경은 이런 과거 진행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¹⁶ 그리고 ‘사도’(使徒)에 복수형 의미 ‘무리’가 포함되기에, 복수형 ‘사도들’로 굳이 번역할 필요는 없다.

2.2. 사도행전 3:22

Ⲱ, 일부 다수사본	ὁ θεὸς ἡμῶν
B	ὁ θεός
² Ⲱ, D, 일부 다수사본	ὁ θεὸς ὑμῶν
개역개정	하나님
바른성경	너희 하나님
번역 제안	우리 하나님

사본 상, ‘우리 하나님’(ὁ θεὸς ἡμῶν)이 지지를 받는다. 이와 유사하게 행 3:13에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ὁ θεὸς τῶν πατέρων ἡμῶν)가 등장한다. 참고로 행 3:22가 인용한 신 18:15는 ‘네 하나님’(ὁ θεός σου)으로 표기하는데, 이것은 MT와 일치한다. ‘네 하나님’은 ²Ⲱ, D, 일부 다수사본이 지지하는 ‘너희 하나님’과 다소 유사하다.

부들의 글에 1739의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1739를 어떤 사본 계열로 분류해야 하는지 논란이 되어 왔다. 1739와 D의 일치도는 54%이며, 1739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대문자 사본들과의 일치도는 약 70%이다. 참고. T. C. Geer Jr., “Codex 1739 in Acts and Its Relationship to Manuscripts 945 and 1891,” *Biblica* 69/1 (1988), 29-30.

16. 참고로 칼빈은 사도행전 주해와 설교를 무려 5년에 걸쳐 했다(1549-1554). 칼빈은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초래한 결과에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본격적 통치 사건인 승천으로써 성령이 초대교회에게 부어져 지상에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초대교회의 시작은 밀접히 연결되기에, 사도행전의 주제는 교회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H. H. van Alten, “Calvin’s View on the Book of the Acts of the Apostles,” *Koers* 79/4 (2014), 2-6.

2.3. 사도행전 3:25

κ, 다수사본, D	ὑμῶν
p ⁷⁴ , A, B	ὁμῶν
개역개정	너희
바른성경	너희의
번역 제안	너희

사본 상, 파피루스와 대문자 사본들의 지지를 받는 ‘너희’(ὑμῶν)가 약간 우세하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지체장애인을 고친 후,¹⁷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면서 청중을 향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부른다. 베드로의 설교의 대상인 ‘너희’는 25절의 문두의 ‘너희는’(ὁμεῖς)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2.4. 사도행전 4:33

B, 다수사본	τῆς ἀναστάσεως τοῦ κυρίου Ἰησοῦ
κ, A	τῆς ἀναστάσ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τοῦ κυρίου
개역개정	주 예수님의 부활을
바른성경	주 예수님의 부활을
번역 제안	주 예수님의 부활을

사본 상, ‘주 예수님의 부활을’(τῆς ἀναστάσεως τοῦ κυρίου Ἰησοῦ)이 약

17. 개역개정의 ‘저는 사람’, ‘장애인’, ‘몸 불편 한 자’는 ‘지체장애인’으로, ‘말 못하는 사람’은 ‘언어장애인’으로, ‘못 듣는 사람’은 ‘청각장애인’으로,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제안은 채은하, “한글 공인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4 (2014), 174를 보라.

간 유세하다. 하지만 \times 는 예수님의 호칭을 완전하게 표기하여(‘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등기독론을 확실하게 반영한다. 하지만 다소 어색한 표현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에서 ‘주’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러나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주’를 예수님에게 주로 적용한다(행 2:36, 47; 3:15).¹⁸

2.5. 사도행전 10:24

\times , 다수사본	εἰσῆλθον
B, D	εἰσῆλθεν
개역개정	들어가니
바른성경	그가 들어가자
번역 제안	그들이 들어갔다.

사본 상, “그들이 들어갔다”(εἰσῆλθον)가 우세하다(KJV). 문맥상 복수 동사가 어울리지만, 단수 동사 “그가 들어갔다”(εἰσῆλθεν)는 베드로 한 명을 강조한다(NIV, 천주교 성경).¹⁹ 따라서 단수 동사로 표기하는 B와 D는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 사건에 있어 사도 베드로의 역할을 강조한다. 참고로 UBS/GNT

18. 참고로 개역개정은 GNT를 따라, 행 8:37을 ‘(없음)’으로 처리한다. 실제로 대문자 사본과 다수의 소문자 사본도 생략한다. 하지만 E사본과 어거스틴, 키프리안과 같은 교부의 글과 몇몇 역본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 온 마음으로 믿으며,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긴 이문이 등장한 것은 AD 4세기 콘스탄틴 황제가 성경 사본과 역본 제작을 장려했고, 기독교 교리를 확립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행 8:37을 각주가 아니라 본문으로 올려, 괄호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C. R. Carson, “Acts 8:37: A Textual Reexamination,”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51/1-2 (1997), 71, 76을 보라.

19. M. C. Parsons and M. M. Culy, *Acts: A Handbook on the Greek Text*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03), 204.

나 바른성경과 달리, 개역개정은 행 10:24-29를 한 문장으로 길게 번역한다. 이렇게 하나의 긴 문장은 독자의 가독성과 이해력을 떨어뜨린다.

2.6. 사도행전 10:36

⌘, 다수사본, D	ὁν
A, B	생략
개역개정	관계대명사를 반영한 번역(보내신 말씀)
바른성경	관계대명사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비교적 자연스런 번역(말씀을 보내셨으니)
번역 제안	관계대명사를 반영하되, 36절 전반부나 중반부에 번역해야 함

사본 상 무게는 ‘그 말씀’(τὸν λόγον)을 선행사로 취하는 관계대명사 남성 단수 대격(ὁν)을 포함한다.²⁰ 관계대명사 바로 앞 단어도 유사한 음(λόγον)으로 마치기에, 필사자가 실수로 빠트린 것으로 보인다.²¹ 개역개정은 관계대명사를 반영하지만, 관계대명사가 위치한 36절의 전반부가 아니라 맨 마지막에 번역한다. 이런 경향은 천주교 성경도 마찬가지이다.

바른성경처럼 선행사는 물론 관계대명사를 전반부나 중반부에 위치시켜 번역하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문학 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다.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36절은 앞의 34-35절과 연결되지만, 이것이 생략된다면 뒤의

20. 참고로 콘콜디아신학교의 Oswald에 따르면, 사도행전을 교회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설명으로 본다면, 말씀의 사역과 성장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으로 본다면, 승천하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하여 말씀 사역을 이루시기에, 사도행전은 교회에게 말씀 자체이다. J. Oswald, “The Word of the Lord grew-and multiplied-and showed Its Strength: The Word of God in the Book of Acts,” *Concordia Journal* 44/1 (2018), 59; A. G. S. Venter, “Die Werk van die Heilige Gees in die Opbou van die Kerk volgens Handeling,” *In die Skriflig* 22/86 (1988), 40.

21. Parsons and Culy, Acts, 210.

37절과 연결된다.²²

2.7. 사도행전 10:40

B, 다수사본	ἐν τῇ τρίτῃ ἡμέρᾳ
Ⲱ, C	τῇ τρίτῃ ἡμέρᾳ
개역개정	사흘 만에
바른성경	제 삼일에
번역 제안	사흘 만에

사본 상, 전치사(ἐν)를 생략한 표현을 지지한다(KJV). 전치사 앞의 단어는 유사한 음(ἡγείρεν)으로 마치기에, 원본의 전치사를 필사자가 실수로 전치사를 빠트렸을 수 있다. 하지만 누가 당시에 전치사를 생략한 표현이 더 관례적이다.²³ 그러나 전치사의 유무가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8. 사도행전 11:20

B, 다수사본	Ἑλληνιστάς
Ⲱ	εὐαγγελιστάς
개역개정	헬라인에게도
바른성경	헬라인들에게도
번역 제안	헬라인들에게도

사본 상, 남성 복수 대격 명사 Ἑλληνιστάς(Hellenists, 헬라인들에게

22. 관계대명사가 포함된 표현이 더 어려워서 원본에 일치한다고 보는 Bock, Acts, 403.

23. B. M.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5), 324.

도)가 우세한데, 이 단어는 행 6:1과 9:29에도 등장한다. 뒤 따르는 분사(εὐαγγελιζόμενοι)의 영향을 받은 κ는 남성 복수 대격 명사 εὐαγγελιστάς(복음전하는 이들에게도)라고 표기하는데, 이 표현은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전파자는 전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²⁴

그런데 ‘Ελληνιστάς가 바로 앞 19절에 ‘유대인들’과 대조되는 ‘헬라인들’인지, 아니면 ‘헬라화 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 명사가 헬라화 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면, 그들은 유대인들과 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²⁵ 매츠거(B. M. Metzger)는 ‘Ελληνιστάς를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 전체를 가리킨다고 이해하면서, 여러 사본(p⁴⁷, κ, A, D)의 필사자들이 더 쉽고 일반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Ελληνάς로(Greeks)로 교정한 것으로 본다.²⁶

2.9. 사도행전 13:44

B, 다수사본	τὸν λόγον τοῦ θεοῦ
p ⁷⁴ , κ, A, 33	τὸν λόγον τοῦ κυρίου
개역개정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성경	주님의 말씀을
번역 제안	주님의 말씀을

사본 상, ‘주님의 말씀을’(τὸν λόγον τοῦ κυρίου)이 훨씬 우세하다(참고. 천주교 성경).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말씀’은 13:49, 15:39, 19:10에 등장한다.

24. B. B. Warfield, “The Readings of ‘Ελληνάς and ‘Ελληνιστάς, Acts xi. 20,” *JBL* 3 (1883), 114, 125. 참고로 Warfield는 외증 상 ‘Ελληνιστάς가 지지를 받지만, 내증 상 ‘Ελληνάς가 옳다고 본다.

25. Bock, *Acts*, 419.

26.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331-32. 참고. Parsons and Culy, *Acts*, 225.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τὸν λόγον τοῦ θεοῦ)은 누가-행전에 더 빈번하게 등장한다(행 4:31, 6:2, 11:1, 13:7, 17:13, 18:11; 참고. 눅 5:1; 8:11, 21; 11:28).²⁷ 그런데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을’이라는 표현만 사용하지 않으므로, 더 자주 사용한 표현이라고 해서 반드시 원본의 표기로 볼 이유는 없다. 따라서 후대의 다수사본은 누가가 더 흔히 사용한 표현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²⁸

2.10. 사도행전 13:48

p ^{45, 74} , Ⲙ, 다수사본	τὸν λόγον τοῦ κυρίου
B, D	τὸν λόγον τοῦ θεοῦ
개역개정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성경	주님의 말씀을
번역 제안	주님의 말씀을

사본 상, ‘주님의 말씀을’(τὸν λόγον τοῦ κυρίου)이 훨씬 우세하다. 하지만 매츠거는 행 13:44와 48절에서 더 흔한 표현인 ‘하나님의 말씀을’(τὸν λόγον τοῦ θεοῦ)을 원본으로 간주하고, 49절에 ‘주님의 말씀’이 등장하므로 48절에서 누가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로 썼다고 본다.²⁹ 그러나 44절처럼 48절도 ‘주님의 말씀을’이 원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누가는 행 13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3회(44, 48, 49절)에 걸쳐 사용한다(비교. 46절의

27.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343.

28. 참고로 사도행전에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 회당에 참여한 이들을 가리키는 σέβω와 φοβέω의 분사형이 종종 등장한다(예. 행 10:2; 13:43). 그런데 σέβω의 분사형은 ‘하나님 예배자’(God-worshiper)로, φοβέω의 분사형은 ‘하나님 경외자’(God-fearer)로 구분하여 번역할 수 있다. 정창욱, “사도행전에 사용된 σέβω와 φοβέω 동사의 분사형 번역,” 『성경원문연구』 37 (2015), 188.

29.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359.

‘하나님의 말씀’).³⁰

2.11. 사도행전 21:25

⌘, 다수사본	ἡμεῖς ἐπεστείλαμεν
B, C, Ψ	ἡμεῖς ἀπεστείλαμεν
개역개정	우리가 편지하였느니라
바른성경	우리가 편지하였다
번역 제안	우리가 편지를 보냈다.

사본 상, 아오리스트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복수 ‘우리가 편지했다.’(ἡμεῖς ἐπεστείλαμεν)가 우세하다.³¹ 한글에서 ‘편지’(ἐπιστολή, 便紙)는 ‘소식을 알리는 글’을 가리키므로, 그런 글을 보냈다는 표현이 한글 번역 상 정확하다. ‘편지를 쓰다/편지를 보내다’(ἐπιστέλλω)와 ‘(무엇을) 보내다’(ἀποστέλλω)는 음이 유사하여, 필사자가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30. 참고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의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강해 설교였다. 그런데 현대 설교자는 사도가 설교 본문으로 취한 구약 구절의 문맥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아 보이는 방식을 흉내 낼 수 없다. 오히려 설교자는 설교할 구약 구절의 문맥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하며, 구속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연구하고, 청중에게 들려지도록 적용해야 한다. G. R. Scharf, “Were the Apostles Expository Preaches?: Old Testament Exposition in the Book of Acts,” *Trinity Journal* 31/1 (2010), 92.

31. 정태현에 의하면, 사도행전에서 ‘우리’ 본문(‘we’ passages)은 바울의 전도 동역자를 포함하며, ‘우리’가 예고 없이 등장하다가 사라지는 경우는 바울의 사역과 역할을 강조하며, 전도 여행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연결되어 소개되고, 하나 이상의 바다 여행 기록을 포함한다. 정태현, “사도행전의 ‘우리’ 대목에 관한 새로운 고찰,” 『신학전망』 175 (2011), 175.

2.12. 사도행전 26:16

p ⁴⁷ , ⲥ, A, 다수사본	생략
B, C	με
개역개정	나를
바른성경	나를
번역 제안	생략

사본 상, 1인칭 단수 대명사(με)를 생략한 것을 지지한다. 필기구가 비싼 구전문화 시대에 독자가 문맥을 통하여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 저자는 단어를 생략하여 경비를 절감했다. 그런데 팔슨스(M. C. Parsons)와 쿨리(M. M. Culy)는 대명사를 포함한 것을 ⲥ와 다수사본이라고 오해한다.³²

3. 종합 및 신학적 경향 분석

위에서 분석한 12본문으로 사도행전의 사본에 나타난 신학적 경향을 파악하기 역부족이다. 하지만 12개의 본문비평을 요약하면 아래의 도표와 같은데, 사도행전의 이문의 특징과 사본의 신학적 경향도 함께 설명해 둔다.

	ⲥ=다수사본	B=다수사본
구절	3:22, 25; 10:24, 36; 13:48; 21:25; 26:16(7회)	2:43; 4:33; 10:40; 11:20; 13:4(5회)

32. Parsons and Culy, *Acts*, 497.

이문의 특징	유사한 음으로 인해 사본 필사자가 혼동했지만 의미상 큰 차이는 거의 없음(3:22, 25; 10:36; 21:25); 동일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함(13:48); 구술문화에 간결한 기록을 선호(26:16)	실수로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지 않고 간략히 표기함(2:43); 앞의 유사한 단어 때문에 누락되었거나, 관례를 따라 간략히 표기함(10:40); 필사자가 익숙한 표현으로 수정(11:20); 사도행전에 더 자주 등장한 단어로 수정(13:44)
사본의 신학적 경향	베드로를 존경(10:24) ³³	고등기독론(4:33)

대체로 B는 *보다 더 간결하게 표기한다. 그리고 D가 독자적 표현을 가진 경우는 7회(3:22; 4:33; 10:40; 11:20; 13:44; 21:25; 26:16)이며, D가 B에 일치하는 경우는 3회이며(2:43; 10:24; 13:48), B가 *에 일치하는 경우는 2회이다(3:25; 10:36).

33. 복음서도 베드로를 존경하고 긍정적으로 묘사하려는 경향이 있다. 마 26:74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 ‘저주하다’(καταθεματίζειν)는 “스스로(자신을) 저주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예. ESV). 막 14:71의 ‘저주하다’(ἀναθεματίζειν)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동사는 ‘타동사’로 사용되는데, 주로 ‘타인’ 혹은 ‘무엇’이라는 목적어를 가진다. 그래서 고전 12:3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다”라고 표기한다. 마 26:74에서 ‘저주하다’의 목적어가 생략되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왜 ‘저주하다’의 목적어인 ‘예수님’을 생략했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스웨덴 룬드대학교의 게르할더슨은 예수님의 수제자격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것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명시해버리면, 1세기 교회가 예배 중에 낭독하는데 부담을 느꼈기에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참고. B. Gerhardsson, “Confession and Denial before Men: Observations on Matt. 26:57-27:2,”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13 (1981), 54-55. 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죄악을 미화시키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 부록: 행 15:17c-18의 본문비평과 번역

ⲡ, B, C	λέγει κύριος ποιῶν ταῦτα γνωστὰ ἀπ’ αἰῶνος.
p ⁴⁷ , A	λέγει κύριος ποιῶν ταῦτα· γνωστὸν ἀπ’ αἰῶνός τῳ κυρίῳ τὸ ἔργον αὐτοῦ.(이것들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에게 알려진 것은 예로부터 행해오신 그분의 일이다).
다수사본	λέγει κύριος ποιῶν ταῦτα· Γνωστὰ ἀπ’ αἰῶνός ἐστιν τῷ θεῷ πάντα τὰ ἔργα αὐτοῦ.(KJV: saith the Lord, who doeth all these things. Known unto God are all his works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이것들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에게 알려진 것들은 예로부터 행해오신 그분의 모든 일들이다.
개역개정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18절).
바른성경	태초부터 이것들을 알게 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신다.(18절).
아프리카스 성경(1983)	sê die Here wat hierdie dinge doen. Dit is van ouds af bekend.(이것들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것은 예로부터 알려진 것이다.) ³⁴
아프리카스 성경(2012)	sê die Here wat dit lank gelede bekendgemaak het.(예로부터 그것을 알게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³⁵
독일어 성경(1984)	spricht der Herr, der tut, was von alters her bekannt ist.(행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것은 예로부터 알려진 것이다).
화란어 성경(1951)	spreek de here, die deze dingen doet, welke van eeuwigheid bekend zijn.(이것들을 행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은 영원부터 알려진 것들이다).
성경(천주교, 2005)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이 일들을 실행하니 예로부터 알려진 일들이다.(17절c -18절).

34. J. G. van der Watt, J. Barkhuizen and H. du Toit (ed), *Interliniêre Bybel: Grieks-Afrikaans Nuwe Testament* (Vereeniging: CUM, 2012), 733.

35. Van der Watt, Barkhuizen and Du Toit (ed), *Interliniêre Bybel: Grieks-Afrikaans Nuwe Testament*, 733.

공동번역(1977)	오래 전부터 이것을 알게 해 주시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18절).
번역 제안	주님께서 이것들을 행하시면서 말씀하시니 예전부터 알려진 것들이다.

예루살렘공의회 중 시므온 곧 베드로의 진술인 17절c와 18절의 비평 등급은 {B}이다. 그런데 외적 증거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며, 구약(암 9:12)이 인용되고, 한글 번역이 분명하지 않기에 본문비평과 번역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베드로가 인용하는 아모스 9:12 LXX는 ὅπως ἐκζητήσωσιν οἱ κατάλοιποι τῶν ἀνθρώπων καὶ πάντα τὰ ἔθνη ἐφ' οὓς ἐπικέκληται τὸ ὄνομά μου ἐπ' αὐτούς λέγει 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οιῶν ταῦτα인데, 밑줄 친 단어들이(이것들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은 사도행전 15:17절c에 등장한다. p⁴⁷과 A가 지지하는 둘째 이문은 ‘알려진 것’(γνωστόν)과 ‘행하신 일’(τὸ ἔργον)을 단수형으로 표기하며, 그것은 ‘주님에게’(τῷ κυρίῳ) 알려진 것이다. 다수사본이 지지하는 셋째 이문은 ‘하나님에게’(τῷ θεῷ) ‘알려진 것들’(Γνωστά)은 행하신 일들(τὰ ἔργα)이다. 그러나 사본 상, 가장 짧은 첫 번째 이문이 지지를 강하게 받는다. 그런데 한글 번역은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주동사(λέγει)와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ποιῶν)을 제대로 번역하지 않는다. 이 분사는 주동사와 동시간의 행동이므로, ‘행하면서 말씀하시다’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아모스 9:12의 의미와 일치한다.

베드로는 아모스 9:12에 나타나지 않는 ‘예전부터 알려진 것들’(γνωστά ἀπ' αἰῶνος)을 추가하는데, 그것은 이사야 45:21(ἀπ' ἀρχῆς)의 암시이다.³⁶ 베드로는 구약을 복합적으로 인용하고 암시함으로써, 예수님이 회복하신 무너진 다윗의 장막 곧 종말의 백성 안에 이방인 크리스천도 포함되는 것을 강

36. E. J. Schnabel, *Acts*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2), 640.

조한다(참고. 암 9:11). 따라서 베드로가 사용하는 선지서의 두 구절은 할례를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방인 출신 크리스천은 유대인의 신분적 표지 중 가장 중요한 할례를 행할 필요 없이 초대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베드로는 현재 분사(ποιῶν)를 통해 이방인들이 종말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일이 지속됨을 강조한다.

참고문헌

- 박덕유·이안용.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성경 한자어 교육 연구: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5 (2019): 162-200.
- 송순열. “사도행전 본문 연구: 서방 사본과의 비교.” 『성경원문연구』 5 (1999): 116-29.
- 송영목, 『다차원적 신약읽기』. 서울: CLC, 2018.
- 이두희. “<새한글 성경전서>(가칭)의 번역 원칙과 몇 가지 보기들.” 서울대 서양고전학연구소 &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공동주최 고전 번역과 성경 번역 세미나.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대림국제관. 2019년 11월 22일: 1-11.
- 장동수. “Textus Receptus와 한글 신약성서 번역: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 43/1 (2009): 43-72.
- 정창욱. “사도행전에 사용된 σέβω와 φοβέω 동사의 분사형 번역.” 『성경원문연구』 37 (2015): 173-92.
- 정태현. “사도행전의 ‘우리’ 대목에 관한 새로운 고찰.” 『신학전망』 175 (2011): 143-86.
- 채은하. “한글 공인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4 (2014): 162-80.
- Aune, D. E. “The Text-Tradition of Luke-Acts.” *Bulletin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7/3 (1964): 69-82.

- Bock, D. L. *Acts*. BECNT. Grand Rapids: Baker, 2007.
- Carson, C. R. "Acts 8:37: A Textual Reexamination."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51/1-2 (1997): 57-78.
- De Vries, L. "Retranslations of Holy Scriptures: Why keep Translating the Bible." 『성경원문연구』 45 (2019): 254-70.
- Geer Jr., T. C. "Codex 1739 in Acts and Its Relationship to Manuscripts 945 and 1891." *Biblica* 69/1 (1988): 27-46.
- Gerhardsson, B. "Confession and Denial before Men: Observations on Matt. 26:57-27:2."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13 (1981): 46-66.
- Goswell, G. "The Place of the Book of Acts in Reading the NT." *JETS* 59/1 (2016): 67-82.
- Keener, C. S. *Acts: An Exegetical Commentary*. Volume 1. Grand Rapids: Baker, 2012.
- Kyrychenko, A. "The Old Slavonic Acts in Apparatus Critici of the Greek NT: Observations and Suggestions." *Novum Testamentum* 47/1 (2005): 69-74.
- Laistner, M. L. W. "The Latin Versions of Acts known to the Venerable Bede." *Harvard Theological Review* 30/1 (1937): 37-50.
- Metzger, B. M.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5.
- Montgomery, J. A. "The Ethiopic Text of Acts of the Apostles." *Harvard Theological Review* 27/3 (1934): 169-205.
- Oschwald, J. "The Word of the Lord grew-and multiplied-and showed Its Strength: The Word of God in the Book of Acts." *Concordia Journal* 44/1 (2018): 41-60.
- Parsons, M. C. and Culy, M. M. *Acts: A Handbook on the Greek Text*. Waco:

- Baylor University Press, 2003.
- Petzer, J. H. "St Augustine and the Latin Version of Acts." *Neotestamentica* 25/1 (1991): 33-50.
- Ropes, J. H. and Hatch, W. H. P. "The Vulgate, Peshitto, Sahidic, and the Bohairic Versions of Acts and the Greek Manuscripts." *Harvard Theological Review* 21/1 (1928): 69-95.
- Scaer, P. J. "The Role of the Book of Acts in the Recognition of the New Testament Canon." *Concordia Theological Quarterly* 79/3-4 (2015): 261-78.
- Scharf, G. R. "Were the Apostles Expository Preaches?: Old Testament Exposition in the Book of Acts." *Trinity Journal* 31/1 (2010): 65-93.
- Schnabel, E. J. *Acts*.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2.
- Stagg, F. "Textual Criticism for Luke-Acts."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5/3 (1978): 141-54.
- Van Alten, H. H. "Calvin's View on the Book of the Acts of the Apostles." *Koers* 79/4 (2014): 1-7.
- Van der Watt, J. G., Barkhuizen, J. and Du Toit, H. (ed). *Interliniêre Bybel: Grieks-Afrikaans Nuwe Testament*. Vereeniging: CUM, 2012.
- Venter, A. G. S. "Die Werk van die Heilige Gees in die Opbou van die Kerk volgens Handeling." *In die Skriflig* 22/86 (1988): 15-41.
- Warfield, B. B. "The Readings of Ἑλληνάς and Ἑλληνιστάς, Acts xi. 20." *JBL* 3 (1883): 113-27.

성경 연구

B i b l i c a l S t u d i e s